데이터 베이스 전문가로서 윤리적 직업적 책임 의식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201511054 임현

목차

Ⅰ. 서론

Ⅱ. 실제 사례

Ⅲ. 해결방안

Ⅳ. 결론

Ⅰ. 서론

1. 연구 주제

현대 사회는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본 에세이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서 어떠한 윤리적 직업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지 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윤리적 직업적 책임 의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심층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잘못된 판단임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악례가 있었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갈구해야 한다. 또한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책임 의식에 대해 강조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 및 윤리성 교육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

Ⅱ. 실제 사례

1. 윤리적 측면

다음은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가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 생각하는 윤리적 측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06~2008년 하나로텔레콤’ 사건이 있는데, 본문은 아래와 같다.

하나로텔레콤은 에스시제일은행과 신용카드 회원모집 제휴계약을 맺은 뒤, 통신상품 가입고객의 개인정보 96만건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판촉업체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이미 상품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도 삭제하지 않고 판촉업체에 넘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1]](#footnote-1)

위 사례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무책임함에 의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중 역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건은 외부 해커에 의해 발생하지만, 내부의 담당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개인 정보를 팔아넘긴 전무후무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에 저질렀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2008년에 한 번 더 저지를 정도로 윤리적 의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감독, 조사하는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8530만 건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벌금 1억 78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법률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2. 직업적 측면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부 해커에 의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 중 하나인 ‘2012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사건이다.

북미 서버 계정의 경우, 암호화된 비밀번호, 본인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 모바일 인증기에 대한 정보, 전화를 이용한 인증기와 관련된 암호화된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

블리자드는 허가 받지 않은 외부 접속 확인 후 즉시 접근을 차단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및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2]](#footnote-2)

앞서 말했듯 위 사례는 앞에서의 윤리적 측면에서 와는 달리, 외부의 해커에 의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례이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킹을 방지하지 못 한 기술적 문제가 크다.

하지만 빠른 대처와 대책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저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며 기술적 측면을 고치겠다고 한 부분은 더 큰 사태를 막고, 고객들 과의 신뢰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Ⅲ. 해결 방안

1. 법률적 측면

앞에 나온 사례에서 잘못된 책임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내가 생각한 법률적 측면의 해결방안은 법률적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위의 윤리적 측면의 사례를 보면 무려 8530만 건 이상의 유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억이 안되는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한 만큼, 걸리면 감당하지 못 할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위 사례는 똑같은 범죄를 재범을 할 정도로 윤리적 의식이 안되어 있는데, 처벌을 강화한다면 줄어들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범죄에 있어서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학창시절에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 교육한 후,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학자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 의무를 가져야 하고, 그 의무를 다했는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위험을 태만하려 하지 않아야 되는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footnote-3)’ 라는 말이 있듯이, 공학도로서 항상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한다.

2. 기술적 측면

앞의 하나로 텔레콤 사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모두 윤리적으로 부족하기 보다, 기술적인 부분의 부족함이 있었다. 실제로 2014년에 일어난 아이클라우드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브루트(iBrute)'라 명칭된 이 버그는 무제한으로 비밀번호 입력을 허용해주는 버그로 이를 통하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입력해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브루트포스(Brute Force)' 해킹이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들은 일정 횟수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 계정을 차단시키는데 아이클라우드의 경우 아이브루트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4]](#footnote-4)

위 사례는 외부의 해커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틀린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라면 아무리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 베이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로서 직업적 책임 의식이란 외부의 해커로부터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지, 허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보완하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윤리성’이라고 생각한다. 해킹 기술로 인한 사고는 실력이 부족하다면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부의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가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해결방안에서 말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윤리성에 대한 교육을 해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결방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라도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김성환,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한겨레, 2008.04.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3722.html> [↑](#footnote-ref-1)
2. 김상희, 블리자드 '배틀넷'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중앙일보, 2012.08.10. <http://news.joins.com/article/9017016> [↑](#footnote-ref-2)
3. 노승환, 설계 프로세스로 배우는 창의적 공학설계, 한빛아카데미, 2014 [↑](#footnote-ref-3)
4. 전선익, 애플, 아이클라우드 해킹 자체 조사중, 파이낸셜뉴스, 2014.09.02. <http://www.fnnews.com/news/201409021450434606?t=y> [↑](#footnote-ref-4)